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0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피플&스토리]"분단의 현장서 강원도만의 문화예술적 에너지 보여주고 싶어"



미술평론가 홍경한. 그는 미술계에서 거침없는 '직설(直說)'로 유명한 인물이다. 삼척 출신인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한 제1회 '평창비엔날레'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줄속으로 치러진 이 행사는 그의 지적과 언론의 보도로 못매를 맞고 이례적으로 그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몇 년 후 홍경한 평론가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한 평창비엔날레에서 이름을 바꾼 강원 국제비엔날레의 예술감독에 취임한다. 아이러니였다. 아마도 그의 지적에 속 꽤나 쓰렸던 이들은 "그래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을지도 모르겠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린 비엔날레의 주제를 '악의 사전'이라는 역설적인 타이틀로 잡은 그의 과감한 판단은 초반의 우려를 깨고 성공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2018년 주목해야 할 세계 10대 비엔날레'에 뽑히기도 했다.

평화·생태·미래 주제 프로젝트

고성군 명파리의 'DMZ비치하우스'
개성만점 작품들 접목 아트호텔 조성
안보 중심지 예술 통해 새롭게 이미지화

한두 해 만에 끝날 사업은 아냐

철원 연구 끝에 특색있는 미술관 구축
철원 역사 함축한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
주민과 소통 매개...지속가능한 매체로

그런 그가 DMZ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DMZ 문화예술삼매경'이라는 사업으로 다시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다. 말하는데 굳이 돌아가는 법이 없는 그는 이번 사업에도 역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를 만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DMZ 문화예술삼매경'에 대해 소개해 달라=“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협력해 추진 중인 광역연계사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만의 성격을 반영해 사업명에 'Re:MAKER(리:메이커)'를 덧붙였다. 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을 뜻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강원국제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맡은 경험이 있다.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해도 되나=“앞서 맡았던 비엔날레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연차별 전시를 통해 담론을 생성하는 것보단 일상과 접목된 공간에서 어떻게 문화예술의 영구성을 실현할까에 초점을 두는 프로젝트다. 사업지인 고성군과 철원군에서 평화·생태·미래를 주제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고성 명파리 소재 유희공간인 'DMZ비치하우스'를 예술가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접목한 아트호텔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정부로부터 제시된 안보 중심의 기존 DMZ의 이미지를 예술을 통해 새롭게 이미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 있나=“앞서 말한 내용 이외에 영동권 최북단에 자리한 장소성 및 분단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이곳을 찾는 실향민들이 잠시라도 쉬며 오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길 고대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에겐 한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 향유를 누리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비치하우스 건물 내외에 흥미로운 예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철원군의 경우 오랜 기간 다양한 기획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다=“다섯 번 이상의 장소와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철원군 근남면 공터에 특색 있는 미술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는 가까이 있는 철원군, 넓게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조형예술 관련 하드웨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작용했으며, 지속적인 대주민 문화예술 향유에 관한 폭을 확장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안 요구도 반영됐다.”

■철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Re: maker_MUSEUM(리:메이커_뮤지엄) 철원'으로 명명할 생각이다. 해당 공간에는 DMZ의 장소성을 반영해 '평화·생태·미래'를 주제로 한 설치, 영상·미디어, 회화, 사진, 조각, 사운드, 디자인 작품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철원의 역사와 마을의 정체성을 함축한 아카이브 공간은 물론 커뮤니티룸을 포함한 주민자치형 생활시설 등도 마련된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매개로서의 미술과 어떤 사안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미술관, 지속가능한 하나의 매체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역 주민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실제 사업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생각에 대한 가중치가 컸다. 구상부터 결과까지 이들의 의견을 배척하지 않은 건 어떤 공간이란 '공동체'가 주체가 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공성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방향이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떤 공간이든 프로젝트든 결국 그들의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한시적 사업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그렇다. 기간 내에 큐레이터와 저는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다. (영속성을 가지려면) 군(郡)의 의지, 거기에 행정력과

예산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과 예술가들의 참여 의지, 뜻과 목적도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동안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계속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DMZ 문화예술삼매경 'Re:MAKER(리:메이커)'가 어떻게 진행되길 바라나=
”가급적 많은 예술가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작가들에게 색다른 창작의 기회와 경제적 선순환이라는 목적이 들어 있는 조치다. 특히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강원권역 작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지도 않고, 질 낮은 행사로 그치길 원치 않는다. 비엔날레 당시에 그랬듯이 여기(철원·고성군)서도 강원도만의 문화예술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 'DMZ 문화예술삼매경'의 주제인 'Re:MAKER'처럼 함께 새롭게 일구는 우리가 되길 고대한다.”

오석기 문화체육부장